

귀농정착자의 정주민족도 분석

최 윤 지 · 황 정 임 · 신 호 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An Analysis of Satisfaction in the Rural Settlement of Returning Farmers

Choi, Yoon Ji · Hwang, Jeong Im · Shin, Hyo Ye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This study was examined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rural settlement and analyzed its differences according to various demographic variable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rural migr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considering returning farmers residing in rural areas.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range test with a total of 210 responses. First, satisfaction with the convenience of living facilities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occupation before urban-rural migration, responses of family members and friends to urban-rural migration, and the initial capital for urban-rural migration. Second, satisfaction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ge and reasons for urban-rural migration. Third, satisfaction with the transportation environment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gender, the period of residence after urban-rural migration, and the employment type of the returning farmer. Fourth, satisfaction with neighborliness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arents' occupation, agricultural experience before urban-rural migration, experience in agriculture-related social life before urban-rural migration, reasons for urban-rural migration, the type of urban-rural migration, and the employment type of the returning farmer. Fifth, satisfaction with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sponses of family members and friends to urban-rural migration, the period of residence after urban-rural migration, and reasons for urban-rural migration. Sixth, satisfaction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the agricultural experience before urban-rural migration, and the period of residence after urban-rural migration.

Key words: satisfaction with rural settlement, urban-rural migration, returning farmer

접수일: 2014년 6월 5일 심사일: 2014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24일

[†]**Corresponding Author:** Shin, Hyo Yeon Tel: 82-63-238-2654

e-mail: hyoryeon@hanmail.ne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붐과 함께 우리사회는 산업사회로 편입되었다. 산업사회로의 편입은 농촌사회의 쇠락을 가져왔고,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진작되면서 농촌사회의 쇠락을 가져왔다. 더욱이 농촌사회의 교육, 도로·교통, 보건의료, 문화·복지 등 생활편의시설에 따른 열악한 정주여건은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귀농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정주민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개개인의 가치 실현, 경제적 이유, 은퇴 등의 이유로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는 농촌사회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귀농가구는 10,923가구로 전년의 11,220가구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3년 연속 10,000가구 이상 귀농해 귀농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귀촌가구는 21,501가구로 전년의 15,788가구에 비해 5,713가구 증가하여 36.2%의 증가율을 보여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

그러나 귀농의 증가 못지않게 농촌생활에서의 부적응이나 불만족으로 역귀농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 도내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는 4천 411세대였고, 역귀농한 세대는 365 세대로 파악되었고(Nam 2014), 전남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로 이주한 귀농인 8591세대 가운데 총 395세대가 도시로 재이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2014). 또한 Lee(2012)의 연구에도 최근 이주한 귀농인 중에서도 농촌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역귀농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몇몇 연구(Kim et al. 2004; Kim 2009)에서는 지난 외환위기 때 귀농했던 인구 가운데 90%이상이 국가경제의 호전에 따라

역귀농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 역귀농의 이유를 살펴보면 Kim(2014)의 기사에서는 농업기술 부족으로 인한 낮은 소득, 영농기반 부족, 열악한 정주여건, 기존주민과의 갈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Park(2014)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생각보다 적어서, 농지나 농기계 등 영농기반을 갖추기 힘들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도시와 달리 불편한 정주여건 및 자녀 교육 어려움, 가족의 부적응,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 등을 역귀농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정주여건의 열악함이나 불만족이 역귀농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한편 귀농가구가 농촌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역귀농 할 경우 농촌 이주를 위해 지출한 개인적 비용 손실과 귀농가구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사회적 비용 손실로 이어져 결국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Kim 2013). 따라서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편리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이들의 정주민족도를 향상시킨다면 역귀농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 감소는 물론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성장 동력이 되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만족 등 심리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히 이들의 정주여건에 초점을 맞춘 만족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다. 도시에서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에 젖어 있으면서 농촌에서 거주하는 반농반도(半農半都)의 특성을 지닌 귀농인에게 농업인의 정주여건이나 삶의 질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정주여건, 정주민족도에 대한 연구가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농촌사회에 귀농하여 살고 있는 귀농인의 인구통계적 변인, 귀농특성 변인, 정주민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인구통계적 변인과 귀농특성 변인에 따라 정주민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 현황을 파악하고, 귀농인의 정주민족도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귀농인들

의 정주민족도를 향상시키고 원만하게 농촌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귀농인의 정주민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바, 연구의 대상을 귀농인을 비롯한 농업인으로,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정주민족도를 비롯한 농촌생활만족도, 삶의 질로 확대하여 살펴 보았다.

1. 정주민족도의 개념 및 실태

정주(定住, human settlement)란 인간의 삶이 지역과 결부되어 사람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안정된 심적 결합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Kim & Shin 1991)이자 인간의 이동이 공간상에 결정(結晶)화 되어 나타난 모습살이를 의미한다(Kim et al. 2003). 한편 Jang & Park(2010)은 정주란 인간이 일정한 장소적 범역에서 영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보았고, Park(2013)은 정주란 정주생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주생활권이란 함은 인간이 일정한 생산, 생활을 벌이는 구체적이며 접촉의 빈도가 높은 공간단위의 생활행동영역이라고 보았다. 정리하면 정주란 일정한 공간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심적 결합을 토대로 함께 생활해 나가는 생활권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주민족도란 주로 정주생활권에서 생활에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Park 2013). 유사 개념으로 정주의식이 있는데 정주의식이란 개인이 특정지역에 대해 느끼는 친숙도 혹은 자신을 그 지역의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정도(Jeon 1998)이자 개인이 그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살겠다는 거주의지(Lee et al. 2004)로 정주의식이 높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애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Lee et al. 2004; Park 2014).

귀농인의 정주민족도 실태를 살펴보면 귀농인의 이주민족도에 대해 연구한 Park(2008)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상태 및 현재의 농촌생활 만족의 비율

이 높았고, 의료보건시설에 대한 만족,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 기존 농민과의 대인관계 만족, 농촌발전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만족,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영농생활에 대한 만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귀농인의 삶의 질 인식 수준을 살펴본 Moon & Kim(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관계와 자아실현 만족도가 다른 영역(정서, 사회생활, 지역 및 단체 소속감, 건강과 활력, 지역환경, 경제활동) 만족도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Ji & Lee(2013)의 연구에 따르면 만족의 응답이 6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농촌주민의 마을생활에 대한 만족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귀농인들의 귀농 전과 후 지각된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한 Kim & Moon(2013)의 연구에서는 귀농 전에 비해 귀농 후 귀농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생활, 가족관계, 단체 및 마을 소속감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약간 개선되었고, 교육·교통·문화·환경 영역의 삶의 질은 약간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들 하위 영역들의 귀농 전, 귀농 후 값의 차이가 .5미만이고, 5점 만점에 2.95~3.59점 사이에 분포하므로 귀농인의 삶의 질은 귀농 전, 후 모두 보통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정주민족도의 측정

학자에 따라 정주민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나 내용에 있어서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ee et al.(2005)은 농촌정주에 있어 중요요인으로 공공서비스환경, 농업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 요인을, 해당지역의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제반시설, 제조산업 및 상거래, 지역문화, 기반시설 요인을 추출하였다. Whang(2006)은 농업인의 삶의 질과 농촌정주생활을 측정하는 지표로 통근취업권, 통학권, 상품구매권, 의료기관·의료서비스시설이용권, 생활편의시설이용권을 제시하였고, Yoon & Park(2006)은 이주지역 선정시 고려하는 항목으로 주변 의료기관, 가족·친구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대중 교통수단, 교육·교양시설, 주변 공공시설, 주변 운동시설, 주변 오락시설을 제시하였다. Song et al.(2007)은 정주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시설, 보건·의료, 문화·여가, 생활편의 서비스,

대중교통시설, 정보통신 등에 대해서는 불편한 정도를, 주택, 생활환경, 소득, 자연환경·문화보전, 활동참여기회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Park(2008)은 귀농인의 이주만족도를 조사하면서 주거상태 만족, 현재의 농촌생활 만족, 의료보건시설 만족, 문화시설 만족, 기존 농민과의 대인관계 만족, 농촌발전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영농생활에 대한 만족을 이주만족도 하위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Lee & Kim(2009)은 정주수요를 의미하는 대용변인(surrogate variable)으로 거주만족도, 애함심, 정주희망, 이촌의도를 살펴보았다. Seo & Eum(2012)은 도시의 정주쾌적성 만족도를 쾌적한 느낌, 계속 거주 의사, 거주 만족, 거주에 대한 행복감으로 측정하였고, Ji & Lee(2013)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에 대한 인식을 경작지와 거리, 의료시설과의 거리, 대중교통의 편리, 여가/문화생활의 편리, 자녀 및 친척과의 거리, 치안 및 방법, 풍부한 일자리, 양호한 주변 환경, 주거비 부담의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Park(2013)은 농촌생활을 지속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정주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가구소득 만족, 현재직업(일) 만족, 의료서비스 만족, 안전 만족, 주택 만족, 교통 만족, 생활환경 쾌적성 만족, 교양·직업교육 등의 평생교육 만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만족, 문화·여가 만족, 마을 사람들과 관계형성 만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요인을 도출해 내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귀농인의 정주만족도에 관한 문항으로 보건·의료, 교육, 문화·여가 등에 관한 생활시설 문항, 자연환경의 쾌적함에 관한 문항, 교통 및 도로환경에 관한 문항, 이웃관계 및 교류에 관한 문항, 농지, 농업시설 등에 관한 문항, 주택의 일조량, 환기, 입지 등에 관한 문항들을 투입하여 정주만족도 요인을 추출하여 구체화하였다.

3. 정주만족도 관련 변인

Lee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인구증가, 유지, 감소 지역별 농촌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인구증가지역은 농업환경요인이 농촌생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기반시설요인이 농촌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유지지역은 농업환경요인이 농촌생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기반시설요인이 농촌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은 농업환경요인이 농촌생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반시설요인과 기반시설요인이 농촌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지역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환경이 좋을수록, 농업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생활환경이 좋을수록, 자연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제반시설이 좋을수록, 기반시설이 좋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 유지, 감소지역에 따라 농촌생활 만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역은 농촌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 변인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Kang(2006)의 연구에서 귀농유형별 마을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와 귀농지역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귀농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ark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건강상태, 가족형태, 주관적 경제수준, 영농교육도 도움 수준, 농촌이주 자금 수준, 관계향상 노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일수록, 가족과 함께 거주할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에 만족할수록, 농촌이주를 위한 영농교육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귀농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 귀농자보다, 농촌이주 시 투자한 총자금이 많을수록, 주민들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hang(2006)의 연구에서는 도·농 통합정주권과 농촌정주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농촌정주생활권 및 삶의 질을 파악했는데, 거주지역(정주생활권)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학력, 성별, 연령, 소득, 거주지, 직업에 따라 농촌생활의 정주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경우 ‘농촌에서도 도시만큼 편리하게 살 수 있다’에 공감하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여자, 50~60대, 소득 100만원 미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촌에서의 삶은 이웃들 간의 공동체적 유대가 크다’는

말에 공감하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제주도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촌의 자연환경이나 경관은 도시보다 좋다’에 공감하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제주 및 충북/충남 거주자, 소득200~300만원 미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민의 경우에는 ‘농촌에서도 도시만큼 편리하게 살 수 있다’에 공감하는 응답은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생산/기능/노무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촌에서의 삶은 이웃들 간의 공동체적 유대가 크다’에 공감하는 응답은 30대 및 50대, 광주, 대전, 제주 거주자, 생산/기능/노무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농촌의 자연환경이나 경관은 도시보다 좋다’에 공감하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부산, 충북/충남 거주자, 생산/기능/노무직, 학생, 소득 400만원 이상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Hwang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성별, 혼인상태, 연령, 가구소득, 귀농·귀촌 동기, 동반 귀농·귀촌자, 이주 이전 직업, 귀농·귀촌 준비기간, 정부사업 수혜여부에 따른 농촌 이주 도시민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성별, 동반 귀농·귀촌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인이 아니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귀농 준비기간이 길수록, 정부사업수혜를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농촌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on & Kim(2012)의 연구에서는 전체 삶의 질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고, 성별, 귀농유형, 농촌생활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이, U턴형이, 농촌생활 기간이 4~5년 정도 된 사람이 전체 삶의 질 인식 수준이 높았다. 삶의 질 하위 영역 중 정주민족도의 내용에 해당되는 지역환경, 지역 및 단체 소속감에 해당하는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환경의 경우 성별은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고, 연령, 귀농유형, 농촌생활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었다. 즉, 50대가, U턴과 J턴형, 농촌생활 기간이 4~5년인 귀농인이 다른 집단 귀농인에 비해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지역 및 단체 소속감의 경우 귀농유형은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고, 성별, 연령, 농촌생활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인이었다. 즉, 남성이, 50대 이상이, 농촌생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지역 및 단체 소속감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Kim & Moon(2013)의 연구에서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여부에 관련이 있는 요인은 귀농유형, 귀농기간, 귀농 후 소득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턴형 귀농인과 I턴형 귀농인들이 J턴형 귀농인들에 비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지각할 확률이 낮았고, 귀농기간이 6년 이상인 집단이 귀농기간이 4~5년인 집단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지각할 확률이 낮았다. 또한 귀농 후 소득이 낮은 집단이 오히려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지각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Park(2013)의 연구에서는 정주민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 사후정책지원요인, 귀농준비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농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농촌흡입요인과 도시배출요인, 그리고 사전정책지원요인, 사후정책지원요인은 정주민족도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귀농준비도를 매개변인으로 한 간접효과가 있었고, 귀농준비도는 직접효과가 있었다. Ji & Lee(2013)의 연구에서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성별, 연령, 가족구성, 직업, 마을거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귀농인의 정주민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동(洞) 지역에서 생활하다 읍·면(邑·面)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농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전국의 귀농인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판단 하에 귀농인 집단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및 귀농인 협의회의 귀농인 업무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을 통해 귀농인을 소개 받고, 해당 귀농인으로부터 또 다른 귀농인을 소개 받는 비확률표집의 일종인 눈덩이표집을 통해 표본을 확보하였다. 자료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귀농

인 집이나 농장 등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귀농인 스스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예비조사는 2009년 7월 8일부터 10일에 걸쳐 경기도 인근에 거주하는 귀농인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설문지의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2009년 7월 15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 총 212명의 귀농인에게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실기재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10부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	Freq.	%
Gender	Male	190	90.5
	Female	20	9.5
Age	Less than 39	32	15.2
	40-49	89	42.4
	50-59	64	30.5
	Over 60	25	11.9
Education	Middle school degree or less	14	6.7
	High school degree	105	50.0
	College degree	14	6.7
	University degree	67	31.9
	Master's degree or more	10	4.8
Residential area	Gyeonggi	16	7.6
	Gangwon	19	9.0
	Chungcheong	42	20.0
	Gyeongsang	94	44.8
	Jeolla	34	16.2
	Jeju	5	2.4
Experience with agricultural school	Yes	26	12.4
	No	184	87.6
Parents' occupation	Farming	122	58.1
	Non-Farming	88	41.9

2. 척도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은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귀농특성, 정주민족도,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귀농특성 문항은 Kang(2006)과 Song et al. (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귀농 전 직업, 귀농 전 농사경험, 귀농 전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 귀농 전 농업관련 교육경험, 귀농 전 영농조언자 여부, 귀농에 대한 주변 사람의 반응, 귀농 전 준비기간, 귀농기간, 귀농의 주된 이유, 귀농유형, 귀농형태, 귀농 투자 자본금으로 구성하였고, 정주민족도 문항은 선행 연구(Lee & Kim 2009; Lee et al. 2005; Park 2008; Song et al. 2007; Whang 2006; Yoon & Park 2006)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의 1점부터 '매우 만족'의 5점 Likert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정주민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농업계학교 출신 여부, 부모의 농업 종사 여부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정주민족도 척도의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하위요인 각각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h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2).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귀농특성 변인에 따른 정주민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다중 비교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고, 직교회전의 일종인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고, 요인부하량은 Hair et al.(2006)가 제안한 .5이상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 test of sphericity)과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MSA)를 실시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상관계수 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

지 않을 경우 요인분석 모형을 사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 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1%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KMO 값은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에 의해 잘 설명되는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인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보여준다. KMO 값은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는 지수인데 일반적으로 .9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며, .7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하고, .5이하이면 받

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의 KMO 값은 .82로 해당 변인들이 요인분석에 적절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22개의 문항 중 2개 문항(인터넷 등 정보기반시설, 오염시설과 떨어진 거리)이 탈락되었으며, 최종 20개 문항의 6개 요인이 생성되었다. 각 요인은 생활시설편리성, 자연환경, 교통환경, 이웃관계, 농업환경, 주택환경 만족도로 명명되었고, 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88, .86, .80, .81, .73, .67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6개 요인의 설명력은

Table 2. Factor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rural settlement

Factor	Item	Factor loading	Variance	Communality variance	Cronbach's α
Convenience of living facilities	I'm satisfied with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medical centers in rural areas.	.817	17.42	17.42	.88
	I'm satisfied with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cultural & leisure facilities in rural areas.	.814			
	I'm satisfied with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shopping centers in rural areas.	.779			
	I'm satisfied with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in rural areas.	.772			
	I'm satisfied with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public facilities in rural areas.	.760			
Natural environment	I'm satisfied with the landscape in rural areas.	.874	11.90	29.32	.86
	I'm satisfied with the quantity and with quality of green space in rural areas.	.842			
	I'm satisfied with the openness of surrounding environments in rural areas.	.809			
Transportation environment	I'm satisfied with the commute time and distance in rural areas.	.820	11.40	40.72	.80
	I'm satisfied with the dista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778			
	I'm satisfied with conditions from the main road to the house.	.625			
	I'm satisfied with the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578			
Neighborliness	I'm satisfied with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neighbors.	.877	10.92	51.64	.81
	I'm satisfied with good neighborliness.	.854			
	I'm satisfied with the exchange among neighbors.	.696			
Agricultural environment	I'm satisfied with facilities for agricultural productions.	.813	10.60	62.24	.73
	I'm satisfied with community activities for agricultural purposes.	.748			
	I'm satisfied with the ease of use of agricultural land.	.736			
Housing environment	I'm satisfied with the house's sunshine, & daylight, and ventilation of houses.	.802	7.50	69.74	.67
	I'm satisfied with the house's area and & appearance of houses.	.784			

Note: KMO's MSA=.82, $\chi^2=2080.82(p\text{-value}=.000)$

69.7%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고찰

1. 귀농인의 귀농특성, 정주민족도의 일반적 경향

1) 귀농인 귀농특성의 일반적 경향

귀농인 귀농특성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3과 같다. 먼저 귀농 전 직업을 살펴보면 자영업·서비스·판매·생산직이 44.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업주부·은퇴자·무직자 29.5%, 전문·

관리·사무직 25.7% 순이었다. 귀농 전 농사경험은 없다가 61.4%, 있다가 38.6%으로 나타났다. 귀농 전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은 경험이 많은 집단이 42.4%으로 가장 많았고, 적은 집단 30.0%, 중간 집단 27.6% 순이었다. 귀농 전 농업관련 교육경험을 살펴보면 경험이 많은 집단이 37.1%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 집단 31.9%, 적은 집단 31.0% 순이었다. 귀농 전 영농조언자는 없다가 76.2%, 있다가 23.8%이었다. 귀농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이 53.3%으로 가장 많았고, 중립 26.7%, 부정 20.0% 순이었다. 귀농 전 준비기간은 평균 3.62년 이었고, 3년 미만인 50.3%, 3년~6년 미만 33.8%, 6년 이상 15.9% 순이었다. 귀농기간은 평균 5.40년

Table 3. Characteristics of urban-rural migration

Variable		Freq.	%	Variable		Freq.	%
Occupation before urban-rural migration	Professional/ Manager/ Office worker	54	25.7	Preparation period before urban-rural migration	Below 3years	101	50.3
	Own business/ ment/Service/ Sales/Production	94	44.8		3years~ Below 6years	68	33.8
	Housewife/ Retiree/ Inoccupation	62	29.5		Over 6years	32	15.9
Agricultural experience before urban-rural migration	No	129	61.4	Period of residence after urban-rural migration	Less than 5years	116	55.2
	Yes	81	38.6		5years~ Less than 9years	48	22.9
					More than 10years	46	21.9
Experience in agriculture-related social life before urban-rural migration1	Low group	63	30.0	Reasons for urban-rural migration	For economic value	65	31.6
	Medium group	58	27.6		For alternative value	96	46.6
	High group	89	42.4		For life convenience	45	21.8
Experience in agriculture-related education before urban-rural migration2	Low group	65	31.0	Type of urban-rural migration	U-Turn	93	45.9
	Medium group	67	31.9		J-Turn	56	26.8
	High group	78	37.1		I-Turn	57	27.9
Agricultural advisor before urban-rural migration	No	160	76.2	Employment type of returning farmer	Succession to agricultural	50	24.3
	Yes	50	23.8		Self-employment	119	57.7
					Agricultural employee/ Co-operation/Other	37	18.0
Responses of family members and friends to urban-rural migration	Negativeness	42	20.0	Initial capital for urban-rural migration3	Low group	75	38.9
	Neutrality	56	26.7		Medium group	82	42.5
	Positiveness	112	53.3		High group	36	18.6

Note1, Note2, Note3: Low group : Below M-SD/2, Medium group : Between M-SD/2 and M+SD/2, High group : Over M+SD/2

이었고, 5년 미만이 55.2%, 5년~10년 미만 22.9%, 10년 이상 21.9% 순이었다. 귀농의 주된 이유는 대안가치추구가 46.6%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효용 추구 31.6%, 생활편의추구 21.8% 순이었다. 귀농유형은 U턴이 45.9%으로 가장 많았고, 1턴 27.9%, J턴 26.8% 순이었다. 귀농형태는 신규창업이 57.7%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승계 24.3%, 농업취업·협업·기타 18.0% 순이었다. 귀농 초기 투자금은 평균 1억 581만원 정도였고, 평균(M)±½표준편차(SD)로 집단구분을 하면 중간집단이 42.5%으로 가장 많았고, 낮은 집단 38.9%, 높은 집단 18.6% 순으로 나타났다.

2) 귀농인 정주민족도의 일반적 경향

귀농인의 정주민족도의 살펴보기 위해 정주민족도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히스토그램 도표를 살펴보았다(Table 4, Fig. 1). 왜도는 절대값 3을, 첨도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왜도는 -.67~.32, 첨도는 -.34~.97로 기준치를 넘지 않아 정주민족도 하위요인 및 전체 정주민족도 변인의 정규분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귀농인의 전체 정주민족도는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Ji & Lee(2013)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83점으로 가장 높고, 주택환경에 대한 만족도 3.76점,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3.74점,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농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3.08점, 생활시설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2.61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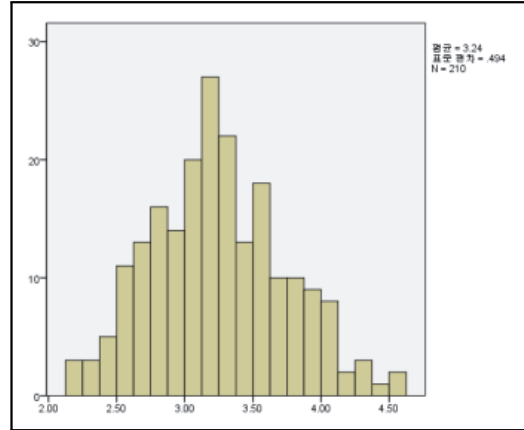


Fig. 1. Histogram of satisfaction with total rural settlement

2. 귀농인의 정주민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민족도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민족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 농업계학교 출신 여부를 제외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부모님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성별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교통환경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12,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12점, 여성의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73점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농촌의 교통환경에 보다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체 삶의 질과 지역 및 단체 소속감 만족도가 높다는 Moon & Kim(2012)

Table 4. Characteristics of satisfaction with rural settlement

Variable	N	Min.	Max.	M	S.D.	Skew.	Kurt.
Convenience of living facilities	210	1.00	5.00	2.61	.82	.32	-.26
Natural environment	210	1.67	5.00	3.83	.70	-.49	.22
Transportation environment	210	1.00	5.00	3.08	.79	-.28	-.34
Neighborliness	210	1.00	5.00	3.74	.73	-.63	.77
Agricultural environment	210	1.00	5.00	3.08	.77	-.09	-.24
Housing environment	210	1.50	5.00	3.76	.68	-.67	.97
Total	210	2.20	4.55	3.24	.49	.26	-.28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Song et al.(2007)의 결과와는 상반되며, 성별은 유의한 영향변인이 아니라는 Hwang et al.(2011)와 Ji & Lee(2013), Moon & Kim(2012)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자연환경 만족도(F=2.93, p<.05)와 전체 정주민족도(F=3.07,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 이하가 60대 이상에 비해 자연환경

과 전체 정주민족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편리성 만족도가 높다는 Song et al.(2007)의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의 하위영역 중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다는 Moon & Kim(2012)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며, 연령은 유의한 영향변인이 아니라는 Hwang et al.(2011), Ji & Lee(2013), 전체 삶의 질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Moon & Kim(2012)의 연

Table 5. Satisfaction with rural settle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	CLF	NAE	TRE	NEI	AGE	HOE	Total	
	M(SD)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2.60(.83)	3.83(.68)	3.12(.78)	3.75(.71)	3.09(.77)	3.76(.68)	3.25(.50)
	Female	2.70(.76)	3.76(.81)	2.73(.76)	3.60(.84)	3.01(.73)	3.71(.68)	3.15(.46)
	t	-.52	.45	2.12*	.86	.41	.35	.88
Age	Less than 39	2.57(.75)	3.80(.68) ^b	3.17(.67)	3.81(.46)	3.12(.64)	3.61(.68)	3.25(.39) ^b
	40-49	2.70(.89)	3.92(.66) ^b	3.20(.73)	3.83(.73)	3.06(.73)	3.82(.65)	3.32(.49) ^b
	50-59	2.57(.83)	3.85(.71) ^b	3.01(.88)	3.69(.79)	3.15(.87)	3.84(.70)	3.23(.54) ^b
	Over 60	2.43(.60)	3.47(.73) ^a	2.75(.81)	3.45(.77)	2.92(.77)	3.52(.65)	2.98(.41) ^a
	F	.79	2.93*	2.62	1.99	.62	2.12	3.07*
Education	High school degree or less	2.64(.81)	3.85(.70)	3.06(.81)	3.78(.73)	3.03(.77)	3.80(.68)	3.25(.49)
	College degree or more	2.56(.84)	3.80(.70)	3.12(.76)	3.68(.72)	3.14(.77)	3.71(.68)	3.23(.49)
	t	.68	.56	-.59	.99	-1.04	.92	.31
Residential area	Gyeonggi	2.73(.85)	3.78(.63)	3.34(.66)	3.79(.78)	3.23(.80)	4.00(.18) ^{ab}	3.37(.37)
	Gangwon	2.72(.74)	4.14(.64)	3.47(.71)	3.65(.84)	3.37(.97)	3.87(.47) ^{ab}	3.43(.53)
	Chungcheong	2.79(.78)	3.72(.71)	2.94(.75)	3.71(.67)	2.99(.64)	3.66(.70) ^a	3.21(.46)
	Gyeongsang	2.47(.85)	3.78(.70)	2.97(.79)	3.73(.72)	3.05(.76)	3.64(.75) ^a	3.16(.50)
	Jeolla	2.56(.79)	3.88(.68)	3.16(.83)	3.80(.73)	2.96(.79)	3.96(.62) ^{ab}	3.27(.49)
	Jeju	3.21(.76)	4.27(.72)	3.60(.84)	3.87(.87)	3.53(.51)	4.20(.57) ^b	3.69(.50)
	F	1.66	1.55	2.53	.17	1.31	2.30*	2.26
Experience on agricultural school	Yes	2.83(.90)	3.87(.65)	3.13(.70)	3.81(.69)	3.29(.73)	3.79(.55)	3.36(.45)
	No	2.58(.81)	3.82(.70)	3.08(.80)	3.73(.73)	3.05(.77)	3.75(.70)	3.22(.50)
	t	1.48	.35	.28	.52	1.53	.25	1.29
Parents' occupation	Farming	2.62(.83)	3.81(.68)	3.11(.79)	3.83(.71)	3.09(.76)	3.79(.65)	3.27(.47)
	Non-Farming	2.59(.82)	3.85(.72)	3.05(.79)	3.64(.73)	3.07(.78)	3.71(.72)	3.21(.52)
	t	.27	-.37	.57	2.27*	.19	.83	.90

*p<.05

Note: CLF(Convenience of living facilities), NAE(Natural environment), TRE(Transportation environment), NEI(Neighborliness), AGE(Agricultural environment), HOE(Housing environment)

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농업환경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30,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 거주자의 농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전라도, 강원도 거주자의 농업환경 만족도가 그 뒤를 이었으며, 충청도와 경상도 거주자의 농업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주도 거주 응답자의 경우 수적 제약이 다르므로 해석 및 일반화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라 정주민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주생활권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Whang(2006)과 인구증가, 유지, 감소지역에 따라 거주민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Lee et al.(200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부모님 직업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자연환경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27,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83점,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귀농인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63점으로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이 농촌의 자연환경에 보다 만족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차이가 .2에 불과해 해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교육수준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농촌주민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생활의 편리성 만족도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체적 유대 만족도가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자연경관의 만족도가 높다는 Song et al.(2007)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2) 귀농특성에 따른 정주민족도의 차이

귀농특성에 따른 정주민족도를 살펴보면 귀농 전 농업관련 교육경험, 귀농 전 영농조언자 여부, 귀농 전 준비기간을 제외한 귀농 전 직업, 귀농 전 농사경험, 귀농 전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 귀농에 대한 주변 사람의 반응, 귀농기간, 귀농의 주된 이유, 귀농유형, 귀농형태, 귀농 투자 자본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6, Table 7).

귀농 전 준비기간에 따라 정주민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Hwang et al.(2011)

에 따르면 귀농·귀촌 준비기간에 따라 정주민족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회귀분석에 투입할 경우 귀농 준비기간이 길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았고, Park(2013)의 연구에서는 귀농준비도가 정주민족도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연구결과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귀농 전 준비기간이나 귀농준비도에 따른 정주민족도에 대해 추후 체계적인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귀농 전 직업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생활시설편리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40,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농 전 전업주부·은퇴자·무직자가 농촌의 생활시설 편리성 만족도가 가장 높고, 자영업·서비스·판매·생산직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문·관리·사무직이 농촌의 생활시설 편리성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이주 이전 직업에 따라 농촌 이주 도시민의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Hwang et al.(2011)의 결과와 상반된다.

귀농 전 농사경험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이웃관계 만족도($t=-3.60, p<.001$), 주택환경 만족도($t=-3.06, p<.01$), 전체 정주민족도($t=-2.2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농 전 농사경험이 있는 사람이 귀농 전 농사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농촌에서의 이웃관계 만족도, 주택환경 만족도, 전체 정주민족도가 높았다.

귀농 전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이웃관계 만족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80, 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집단이 농촌사회의 이웃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중간 집단이 그 뒤를 이었으며,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집단이 이웃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귀농의사결정에 대한 가족·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생활시설편리성($F=3.15, p<.05$), 농업환경($F=7.25, p<.01$), 전체 정주민족도($F=5.1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사람이 귀농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중립적이거나 찬성하는 사람보다 생활시설 편리성 만족도, 농업환경 만족도, 전체 정주민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기간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교통환경 만족도($F=3.19, p<.05$)와 농업환경 만족도($F=6.10, p<.01$), 주택환경 만족도($F=4.01, p<.05$), 전체 정주민족도($F=5.1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농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5년 미만인 사람보다 교통환경 만족도, 농업환경 만족도, 주택환경 만족도, 전체 정주민족도에 보다 더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생활 기간이 4-5년, 5년 미만인 사람이 전체 삶의 질 인식 수준,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 지역 및 단체 소속감 만족이 높다는 Moon & Kim (2012)의 연구결과, 귀농기간이 6년 이상인 집단이 4-5년 된 집단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지각할 확률이 낮다는 Kim & Moon(2013)의 연구결과, 농촌주민의 경우 마을 거주기간에 따른 정주여건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Ji & Lee(2013)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귀농의 주된 이유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자연환경 만족도($F=3.23, p<.05$), 이웃관계 만족도($F=5.26, p<.01$), 농업환경 만족도($F=3.13, p<.05$), 전체 정주민족도($F=4.5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편의를 위해 귀농한 사람보다 경제적 효용과 대안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한 사람이 자연환경, 이웃관계, 농업환경, 전체 정주민족도를 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농유형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이웃관계 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52,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턴형이나 J턴형보다 U턴형이 이웃관계 만족도를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척이나 친구의 부모님이 기거하는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는 U턴형의 경우 타지에서 들어와 정착해 살아가는 J턴이나 I턴형에 비해 어르신이나 지역유치와의 유대관계 형성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U턴형과 I턴형이 J턴형 귀농인에 비해 삶의 질이 높다고 지각한다는 Kim & Moon (2013)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귀농유형에 따라 마을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와 귀농지역 만족도에 차이가 없다는 Kang(200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귀농형태에 따라 정주민족도는 도로교통 만족도($F=3.20, p<.05$)와 이웃관계 만족도($F=7.26,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가족 등의 농업을 승계한 사람과 신규 창업한 사람이 농업에 취업하거나 친구 등과 협업하는 사람보다 교통환경 만족도가 높았고, 이웃관계 만족도의 경우 농업을 승계한 사람이 이웃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고, 신규창업한 사람, 농업에 취업하거나 협업한 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농업을 승계한 사람은 고향 농촌사회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과거부터 경험해왔기 때문에 불만의 요소로 여기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농업을 승계한 사람이 이웃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귀농유형 중 U턴형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귀농 투자 자본금에 따른 정주민족도는 생활시설 편리성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70,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투자자본금이 적은 집단이 생활시설 편리성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순이었다. 농촌사회의 정주여건이나 편의시설이 도시민이나 귀농인의 기대치를 따르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본금을 투자해 불만을 야기하기보다는 적게 투자하더라도 농촌사회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등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귀농인의 자세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이주시 투자한 총자금이 많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Park et al.(200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생계형 귀농인이 많아 경제력이 귀농에 있어 중요한 성공의 요인으로 여겨졌으나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귀농인들이 늘어나면서 귀농을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만족하며 소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농에 대한 패러다임, 가치 전환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able 6. Satisfaction with rural settlemen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urban-rural migration(1)

Variable		CLF	NAE	TRE	NEI	AGE	HOE	Total
		M(SD)	M(SD)	M(SD)	M(SD)	M(SD)	M(SD)	M(SD)
Occupation before urban-rural migration	Professional/ Manager/ Office worker	2.43(.80) ^a	3.74(.74)	2.97(.72)	3.61(.68)	3.06(.73)	3.81(.50)	3.14(.49)
	Own business/ Service/Sales/ Production	2.55(.81) ^{ab}	3.91(.72)	3.11(.80)	3.80(.74)	2.99(.84)	3.73(.76)	3.24(.50)
	Housewife/ Retiree/ Inoccupation	2.85(.82) ^b	3.79(.62)	3.14(.82)	3.75(.74)	3.23(.68)	3.75(.69)	3.33(.48)
	F	4.40*	1.19	.80	1.14	1.82	.20	2.10
Agricultural experience before urban-rural migration	No	2.59(.81)	3.79(.73)	3.06(.82)	3.60(.74)	3.00(.76)	3.65(.68)	3.18(.50)
	Yes	2.63(.84)	3.89(.64)	3.13(.73)	3.96(.65)	3.20(.77)	3.94(.63)	3.34(.47)
	t	-.35	-1.00	-.63	-3.60***	-1.84	-3.06**	-2.22*
Experience in agriculture-related social life before urban-rural migration ¹	Low group	3.71(.82)	3.91(.74)	3.09(.73)	3.95(.72) ^b	3.20(.85)	3.84(.66)	3.34(.48)
	Medium group	2.59(.93)	3.91(.62)	3.07(.80)	3.74(.73) ^{ab}	3.07(.75)	3.84(.61)	3.25(.52)
	High group	2.55(.75)	3.72(.70)	3.09(.83)	3.59(.69) ^a	3.00(.72)	3.65(.72)	3.16(.48)
	F	.73	2.00	.01	4.80**	1.27	2.12	2.33
Experience in agriculture-related education before urban-rural migration ²	Low group	2.69(.76)	3.77(.68)	3.06(.69)	3.73(.71)	3.06(.70)	3.83(.61)	3.25(.43)
	Medium group	2.62(.94)	3.96(.65)	3.05(.83)	3.85(.77)	3.19(.82)	3.83(.59)	3.30(.53)
	High group	2.53(.77)	3.76(.74)	3.14(.83)	3.65(.70)	3.00(.78)	3.64(.78)	3.18(.50)
	F	.66	1.73	.27	1.45	1.08	1.88	.99
Agricultural advisor before urban-rural migration	No	2.59(.83)	3.78(.69)	3.05(.81)	3.70(.75)	3.07(.78)	3.71(.66)	3.21(.51)
	Yes	2.65(.81)	3.97(.71)	3.18(.70)	3.86(.63)	3.10(.74)	3.90(.71)	3.33(.43)
	t	-.46	-1.68	-1.03	-1.38	-.22	-1.77	-1.48
Responses of family members and friends to urban-rural migration	Negativeness	2.88(.84) ^b	3.89(.75)	3.24(.85)	3.85(.78)	3.48(.61) ^b	3.95(.62)	3.45(.52) ^b
	Neutrality	2.50(.79) ^a	3.71(.72)	2.96(.77)	3.64(.75)	3.02(.81) ^a	3.70(.64)	3.14(.45) ^a
	Positiveness	2.56(.82) ^a	3.86(.66)	3.09(.77)	3.75(.69)	2.96(.76) ^a	3.72(.71)	3.21(.48) ^a
	F	3.05*	1.06	1.57	1.04	7.25**	2.07	5.13**

***p<.001, **p<.01, *p<.05

Note: CLF(Convenience of living facilities), NAE(Natural environment), TRE(Transportation environment), NEI(Neighborliness), AGE(Agricultural environment), HOE(Housing environment)

Table 7. Satisfaction with rural settlemen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urban-rural migration(2)

Variable		CLF	NAE	TRE	NEI	AGE	HOE	Total
		M(SD)	M(SD)	M(SD)	M(SD)	M(SD)	M(SD)	M(SD)
Preparation period before urban-rural migration	Less than 3years	2.64(.86)	3.76(.69)	3.09(.79)	3.72(.66)	3.14(.69)	3.71(.69)	3.24(.50)
	3years~ Less than 6years	2.61(.73)	3.82(.73)	3.11(.72)	2.64(.75)	2.92(.78)	3.74(.58)	3.20(.47)
	More than 6years	2.57(.95)	4.08(.56)	2.99(.96)	3.95(.84)	3.24(.84)	3.95(.79)	3.33(.52)
	F	.08	2.61	.23	1.99	2.61	1.60	.67
Period of residence after urban-rural migration	Less than 5years	2.54(.85)	3.74(.71)	2.96(.78) ^a	3.71(.64)	2.92(.76) ^a	3.64(.75) ^a	3.15(.47) ^a
	5years~ Less than 10years	2.62(.72)	3.92(.69)	3.23(.74) ^b	3.75(.80)	3.33(.77) ^b	3.85(.45) ^{ab}	3.34(.47) ^b
	More than 10years	2.77(.83)	3.95(.65)	3.24(.81) ^b	3.80(.86)	3.22(.71) ^b	3.95(.64) ^b	3.38(.53) ^b
	F	1.38	2.09	3.19 [*]	.24	6.10 ^{**}	4.01 [*]	5.15 ^{**}
Reasons for urban-rural migration	For economic value	2.70(.91)	3.95(.64) ^b	3.26(.90)	3.89(.68) ^b	3.20(.83) ^b	3.75(.73)	3.36(.57) ^b
	For alternative value	2.60(.80)	3.86(.69) ^{ab}	3.07(.75)	3.79(.76) ^b	3.13(.72) ^b	3.82(.67)	3.26(.44) ^b
	For life convenience	2.55(.74)	3.61(.77) ^a	2.91(.66)	3.46(.61) ^a	2.85(.72) ^a	3.68(.60)	3.08(.41) ^a
	F	.49	3.23 [*]	2.65	5.26 ^{**}	3.13 [*]	.63	4.54 [*]
Type of urban-rural migration	U-Turn	2.70(.88)	3.87(.81)	3.23(.84)	3.90(.75) ^b	3.08(.78)	3.83(.64)	3.33(.52)
	J-Turn	2.59(.74)	3.78(.64)	3.04(.68)	3.65(.73) ^a	3.10(.74)	3.72(.76)	3.20(.45)
	I-Turn	2.49(.83)	3.78(.73)	2.95(.75)	3.58(.65) ^a	3.13(.78)	3.70(.62)	3.16(.48)
	F	1.10	.44	2.49	4.52 [*]	.07	.82	2.57
Employment type of returning farmer	Succession to agricultural	2.58(.78)	3.85(.71)	3.19(.79) ^b	4.02(.68) ^c	3.10(.73)	3.93(.71)	3.32(.49)
	Self-employment	2.58(.89)	3.88(.67)	3.13(.80) ^b	3.72(.74) ^b	3.12(.80)	3.73(.62)	3.25(.51)
	Agricultural employee/ Co-operation/Other	2.72(.70)	3.68(.77)	2.79(.71) ^a	3.44(.61) ^a	2.98(.61)	3.63(.79)	3.12(.42)
	t	.42	1.07	3.20 [*]	7.26 ^{**}	.51	2.36	1.83
Initial capital for urban-rural migration ³	Low group	2.76(.84) ^b	3.79(.69)	3.15(.77)	3.73(.66)	3.03(.70)	3.77(.67)	3.28(.48)
	Medium group	2.58(.82) ^{ab}	3.77(.74)	3.08(.84)	3.75(.72)	3.04(.77)	3.74(.65)	3.22(.53)
	High group	2.31(.85) ^a	3.99(.63)	3.00(.69)	3.90(.91)	3.24(.88)	3.85(.65)	3.21(.43)
	F	3.70 [*]	1.35	.49	.10	1.06	.35	.37

**p<.01, *p<.05

Note: CLF(Convenience of living facilities), NAE(Natural environment), TRE(Transportation environment), NEI(Neighborliness), AGE(Agricultural environment), HOE(Housing environment)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귀농인의 정주민족도 현황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귀농특성 변인에 따른 정주민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및 귀농인 협의회의 귀농인 업무 담당자에게 귀농

인을 소개받아 2009년 7월 15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 귀농인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민족도를 요인분석 한 결과 생활시설 편리성 만족도, 자연환경 만족도, 교통환경 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농업환경 만족도, 주택환경 만족

도의 6개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고, 귀농인의 전체 정주민족도는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83점으로 가장 높고, 생활시설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2.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생활시설 편리성 만족도는 인구통계적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귀농특성 변인에서는 귀농 전 직업, 귀농에 대한 주변사람의 반응, 귀농 투자 자본금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생활시설 편리성 만족도는 전업주부· 은퇴자· 무직자, 귀농에 대해 주변사람의 반응이 부정적인 귀농인, 귀농 투자 자본금이 적은 귀농인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연환경 만족도는 인구통계적 특성 가운데 연령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귀농특성 변인에서는 귀농의 주된 이유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자연환경 만족도는 50대 이하, 경제효용을 이유로 귀농한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교통환경 만족도는 인구통계적 특성 가운데 성별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귀농특성 변인에서는 귀농기간과 귀농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교통환경 만족도는 남자, 귀농기간이 5년 이상, 농업 승계와 신규 창업 형태의 귀농인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웃관계 만족도는 인구통계적 특성 가운데 부모님 직업, 귀농특성 변인에서는 귀농 전 농사경험, 귀농 전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 귀농의 주된 이유, 귀농유형, 귀농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이웃관계 만족도는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 귀농 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귀농 전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사람, 경제적 효용과 대안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귀농인, 농업을 승계한 귀농인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농업환경 만족도는 인구통계적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귀농특성 변인에서는 농에 대한 주변사람의 반응, 귀농기간, 귀농의 주된 이유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농업환경 만족도는 귀농에 대해 주변사람의 반응이 부정적인 귀농인, 귀농기간이 5년 이상, 경제적 효용과 대안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한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주택환경 만족도는 인구통계적 특성 가운데 거주지역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귀농특성 변인에서는 귀농 전 농사경험, 귀농기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주택환경 만족도는 제주도 거주자, 귀농 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귀농기간이 10년 이상인 귀농인이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전체 정주민족도는 인구통계적 특성 가운데 연령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귀농특성 변인에서는 귀농 전 농사경험, 귀농에 대한 주변사람의 반응, 귀농기간, 귀농의 주된 이유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전체 정주민족도는 50대 이하, 귀농 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귀농에 대한 주변사람의 반응이 부정적인 귀농인, 귀농기간이 5년 이상인 귀농인, 경제적 효용과 대안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한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아홉째, 인구통계적 특성 중 교육수준, 농업계학교 출신 여부, 귀농특성 중 귀농 전 농업관련 교육 경험, 귀농 전 영농조언자 여부, 귀농 전 준비기간 변인은 정주민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 전 전업주부· 은퇴자· 무직자, 귀농 투자 자본금이 적은 귀농인이 생활시설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고무할만한 결과이다. 도시 빈곤층의 경우 도시에서 생활하면서도 낮은 소득으로 편리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그러나 귀농이라는 행위를 통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농업인은 낮은 비용이나 무료로 의료서비스나 귀농교육, 평생교육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귀농이라는 행위는 농업이라는 평생직장을 갖게 되어 고용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텃밭재배와 같은 가계생산으로 소비지출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귀농인의 농촌사회에 대한 평가 및 생활시설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효용과 대안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한 사람이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고자 귀농한 사람보다 자연환경 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농업환경 만족도, 전체 정주민족도가 높았다. 아직까지 한국의 농촌은 도시에 비해 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보건· 의료시설, 영화관과 같은 문화· 여가시설, 자녀의 교육시설, 마트나 백화점 등의 상점시설 등

이 부족하고, 그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 귀농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바로잡고자 역귀농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 역귀농의 경우 귀농에 따른 금전·시간상 손실이 불가피하고 가족 간 불화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귀농 전 가족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귀농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다.

셋째,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 귀농 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 U턴한 경우, 농업을 승계한 사람이 이웃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농촌사회에 잘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혀 모르는 곳에 귀농하기 보다는 고향 또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 과거 방문 경험이 있는 지역으로 정착할 때 이웃과의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맺어 나갈 수 있으며, 이는 곧 성공적인 정착의 열쇠가 된다. 한편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귀농인이 이웃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 영농생활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어느 정도 축적한 귀농인은 이웃과의 소통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사람은 이웃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영농생활에 대한 지식·정보를 얻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하게 되므로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사람이 이웃관계에 보다 만족해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타지로 이주하는 J턴이나 I턴의 경우 좋은 이웃관계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고향이 아닌 타지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나 관심이 보다 요구되며, 귀농인 선배나 간사를 연계해주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존주민과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주환경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귀농 전 농업관련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 또한 좋은 이웃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의 경우 농업에 대해 잘 안다는 이유로 기존 주민들의 농업에 대한 조언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거나 관행농법과 다른 농법을 취함으로써 기존 주민과 반목하거나 불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토착 주민의 영향력이 크고

폐쇄적인 농촌사회 특성상 주민들과 반목할 경우 버릇없거나 잘난척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귀농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외지인인 귀농인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농촌사회에 동화하고 적응해가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변사람이 귀농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농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주변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농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귀농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의 귀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의 농업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업을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쇠락해가는 농촌사회를 젊은 농촌화하여 농촌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귀농기간이 긴 사람이 교통환경 만족도, 농업환경 만족도, 주택환경 만족도, 전체 정주만족도의 점수가 높다는 점은 귀농기간이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려준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정주여건이 좋지 못하며 따라서 도시생활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귀농인들이 하루아침에 농촌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초보 귀농인이 농촌생활의 불편함을 농촌생활의 주요 특성으로 받아들여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고, 처음부터 농지나 작업장을 대규모로 매입하거나 투자하기보다 조금씩 늘려 나가며, 집을 좋게 신축하기보다 조금씩 고치며 적응해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훗날 귀농인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더불어 귀농기간이 짧은 사람이 정주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귀농초기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향상 및 농촌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교육시 귀농인이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촌사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귀농 투자 자본금이 농촌사회의 전체 정주만족도에 유의한 변인이 아니고 농사경험, 귀농기간, 주변사람의 반응, 귀농의 이유가 유의한 변인이었다는 점은 귀농인의 정주만족은 금전의 많고 적음보다는 경험과 행동, 가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체계적인 귀농(영농)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귀농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귀농특성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향후 정주민족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인, 가족관련 변인, 귀농정책 변인을 비롯한 다양한 변인을 포착해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귀농기간에 따른 정주민족도의 차이를 살필 수 있었으나 횡단연구의 한계로 귀농시점이 다른 대상 간 비교가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시점을 달리해 귀농초기, 귀농 정착기의 정주민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귀농준비자들의 정주요구도를 조사한 후 동일한 사람의 귀농 후 정주민족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귀농인의 정주민족도에 대한 연구의 실용성 및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눈덩이표집을 통해 확보한 적은 규모의 212명의 귀농인 샘플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정 사례수의 표본을 추출해야 할 것이며, 표본 추출시 지역별 층화 표본 추출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농업 및 농촌사회에 대한 과거 경험이 정주민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시 출신 귀농인이나 타향으로 귀농을 하는 사람의 경우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을 실행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나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 귀농관련 교육기관의 귀농교육과 컨설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귀농에 앞서 다양한 귀농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귀농 의사결정에 앞서 사전에 방문해 그 지역의 교육·교통·문화여가·공공시설 등의 정주여건에 대해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귀농하는 것 또한 성공적인 농촌정착의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귀농지역을 결정했다면 해당 마을의 농원이나 관광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지역주민들과 사전적 유대관계를 쌓아 놓는다면 귀농 후 이웃관계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역귀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농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정책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이미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귀농인 및 해당 지역으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준비자들과의 주기적 만남을 통해 이들이 원하는 지역의 정주여건은 어떠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여 귀농준비자 및 귀농인의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농촌개발 및 귀농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Hair JF, Black WC, Babin BJ, Anderson RE, Tatham RL(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wang JI, Choi YJ, Cho HM, Yoon SD(2011) 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 with rural life satisfaction. *Korean J Ag Ext* 18 (4), 729-764
- Jang DM, Park TS(201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human settlement environment in the agrarian-based community of industrializing rural city with reference to D-gun, Chungnam. *J Community Dev Soc* 35(2), 71-81
- Jeon SP(1998)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local patriotism of the residents living in the Industrial city. *Korean Regional Stud*, 111-128
- Ji NS, Lee CW(2013) 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ettlement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rural residents -Focusing on Jeollabukdo-. *J Korean Soc Rural Plan* 19(4), 55-71
- Kang DK(2006) Adoption process with return types of return farmers. *J Korean Ag Educ* 38(2), 23-53
- Kim BS(2013) *An ecological systematic analysis on the rural society adjustment of urban migrants to rur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m CH, Park YH, Park IK(2003)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erritorial structure changes in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nyang

- Kim JJ, Shin NS(1991)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onsciousness of inhabitants in the urban areas - Focused on the community sense and the consciousness of inhabitants-. J Archtl Inst Korea 7(5), 261-268
- Kim JS(2009) What can local governments do to help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Korean J Ag Exp 16(3), 533-556
- Kim SR, Moon ST(2013) The study of comparison in perceived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returning to the rural areas. Korean J Ag Manag Policy 40(3), 841-863
- Kim SS(2014) The maladjustment of rural life,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returning to urban from rural . The Chonnam Ilbo. Available from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02498800444836001> [cited 2014 August 21]
- Kim SS, Cheng JW, Lim HB, Koh WM, Kim JT, Lee S(2004) Direction of program development for supporting u-turn farmers' rural settlement. Korean J Ag Ext 11(1), 53-65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4) Press release. 2013 Return to Farm and Rural Areas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12402 [cited 2013 March 20]
- Lee DP(2012) Agricultural outlook 2012 Kore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 Lee HC, Kim H(2009) Determinants of demand for residential settlement in rural society based on depopulation classification. J Korean Soc Rural Plan 15(1), 61-71
- Lee HC, Kim H, Yoo CK, Han JY(2005). Maintaining the optimum population in rural areas. Rural Research Institute: Ansan
- Lee HC, Park HB, Choung WI(2004). An analysis on the factors to affect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of inhabitants. Korea Assoc Policy Stud 13(3), 147-169
- Moon ST, Kim SR(2012) Awareness about quality of life among urban to rural returners. J Korean Ag Educ 44(1), 1-21
- Nam HJ(2014) It is important to create new population policy for the people returning to urban from rural in Jeonbuk. The Jeonbuk Domin Ilbo. Available from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668> [cited 2014 February 19]
- Park EK(2008) Investigation on satisfaction of urban-to-rural migrants dwelling in Youngwol are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Park GJ, Yoon SD, Kang KH (2006) Factors effecting on the rural life satisfaction of returners to the farm after retirement. J Korean Soc Rural Plan 12(4), 63-76
- Park JA(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life satisfaction on their willingness for resettlement in Kore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Park JM(2014): It is urgent that the government prepares settlement policy for the people who moving from rural to urban. The Jeonbuk Joongang Shinmun. Available from <http://pdf.jjn.co.kr/20140825/20140825-02.pdf> [cited 2014 August 21]
- Park SB(2013) The integrative impact-relationship between the rural life satisfaction of farming returnees and its factors. Korean Soc Adm 24(3), 253-277
- Seo SB, Eum SW(2012)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 of amenity in Daejeon Metropolitan. Korea Real Estate Soc Thesis 30(2), 215-229
- Song MR, Park JY, Seong JI, Kim YL(2007) A study on the survey of demand for residential settlement in rural society in 200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 Whang HD(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rural settlement regions in Gyeongnam province. J Ag Life Sci 40(3), 1-25
- Yoon SD, Park GJ(2006) A demand analysis on urbanites' retired life in the countryside. J Korean Soc Rural Plan 12(2), 37-47